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참참참참

한때 유행했던 게임 중에 '참참참'이란 게 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상대방 얼굴 바로 앞에 손을 갖다 세우고 "참참참"이라고 외친다. 마지막 '참'과 동시에 손을 왼쪽이나 오른쪽,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상대방의 고개가 손을 따라 움직이면 벌칙을 받는 게임이다.

여기서는 참을 하나 덧붙여 '참참참참'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네 가지 예문을 보면 '참'이 모양은 같지만 성격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①참,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했지?
②맞아. 나 그 사람 참사랑해.
③너희는 참사랑을 아는구나!
④그래. 우리 사랑은 참이야!

예문에 포함된 네 가지 참을 기능별로 적으면 ①감탄사 ②부사 ③접두사 ④명사로 구분된다. 기능별 특징을 알고 쓰면 좋을 것이다. 감탄사 참은 문장 앞에서 쓰이며 쉼표(,)를 동반한다. 부사 참은 주로 뒤따르는 용언을 꾸민다. 접두사 참은 체언과 만나 파생어를 만든다. 명사 참은 진실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반대말은 거짓이다.

한국어문교열연구원 원장

제롬 파월의 길, 이창용의 길

스카이 View

한원석
경제산업부장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국발(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같은 달보다 8.3%나 오르며 전망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기준 금리 인상 폭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기준 금리를 한 번에 1.0%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3.5%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움직임에도 눈길이 쏠린다. 10월과 11월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두 번 남은 금리 인상의 폭을 한은이 어떻게 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리 변화 자체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명된 이후 기준금리는 4월과 5월에 0.25%p씩 올랐고 7월에는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으로 2.25%가 됐고, 이어 8월에는 다시 0.25%p를 올려 현재 금리는 2.5%다. 한은 금통위가 4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8월 금리 인상으로 다시 미국과의 기준금리는 같아졌지만, 이번에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경우 다시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예를 들어 한미 금리 역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한은이 콜금리 목표제를 시작하고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19년 10월 모두 3차례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주로 증권에서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에서는 순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IMF 사태의 파장이 남아 있던 2000년 전후에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서 오르내렸고, 2005년부터 2007년 당시 환율은 9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과 2019년에도 환율은 11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00원선을 돌파할 뻔하는 등 원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대문이다. 1300원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환율은 불과 한 달 만에 1400원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 이후인 15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p 인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399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3월20일(종가기준 1402원)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여기에 국제수지도 문제다. 당시의 국제수지는 흑자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우리 무역수지는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IMF 사태 직전인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폭도 축소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0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66억 2000만달러(85.9%)나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미국 금리를 따라가자는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직격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상단은 6% 중반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은행 대출 금리가 7%선을 돌파해 8%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계 인사는 이러한 문제의 한 요인으로 한국은행을 지목하기도 한다. 한은이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던 2018년과 2019년,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미온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인사는 "한은이 그때 미국 수준인 2.25~2.5% 정도로만 금리를 유지했더라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0.5%라는 사상 최저 금리까지 낮출 필요도 없었다"면서 당시 한은 지도부의 책임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달 이창용 총재가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도 화제가 됐다. 그는 "과도한 단순화로 시장이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해 기준금리를 뒤늦게 올린 연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총재도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다가 연준보다 금리인상을 먼저 종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 총재가 0.25%p 인상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시장에 줄 경우 연준을 향했던 비판은 부메랑처럼 이 총재를 향할 수도 있다. 수많은 변수를 상정하고 감안해 한은 금통위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만을 기대한다.

wshan@skyedaily.com

데일리 Talk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필요하다

김나윤
경제산업부 기자

30대 회사원 김씨는 얼마 전에 반려견의 턱에 종양이 생겨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동물병원마다 수술비용이 달라서 가장 비용이 낮은 병원에서 150만원을 주고 수술을 했다고 한다. 어떤 동물병원은 무려 500만원을 제시해 깜짝 놀랐다고 김씨는 푸념하듯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30대 성씨는 "파양된 강아지를 입양해 치료하다 보니 아픈 곳이 많았다"면서 "아픈 곳을 치료한 뒤 펫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보험사 측에서 가입을 받아 주지 않아 우리 강아지는 보험이 아예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펫팸족(Pet+Family)'의 가장 큰 걱정은 반려견의 건강이다. 반려견이 아프면 동물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설령 펫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부담할 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비용 측면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가격 규정이 없다 보니 결국 펫주인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것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521만가구가 반려견 602만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44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 정도라고 발표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고 있음에도 보험 가입률은 0.25%(2020년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체감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펫보험은 개와 고양이만 가입할 수 있다.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적이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진료 이력 등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다.

2020년 동물병원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1회 평균 진료비 지출비용은 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83%에 달했다.

특히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점은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는 약 3~6배 정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병원마다 진료 금액이 들쑥날쑥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예상 손해액이 추산조차 안되니 몇몇 보험사들은 아예 진출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양육서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실제 펫보험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저조한 동물등록률 개선, 진료 항목과 표준화 등의 과제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진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 중성화 수술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은 약 5배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 비용도 차이가 컸는데 특히 항체검사(개) 비용이 최대 7.5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예방접종 중 가격 차이가 가장 컸다. 치과 관련 비용에서는 발치(송곳니) 가격이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으로 무려 80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는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개최된 반려동물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와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가구가 늘면서 동물의료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보험 등 반려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를 일원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펫보험 진료비 범위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nykim@skyedaily.com

SkyeDaily 스카이데일리

사장·발행인 조민호 편집인·주필 조정진
인 쇄 인 임채청 편 집 국 장 김동원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
TEL 02-522-6595~6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